

“연구·창업·교육 성과”...에너지특화대 성장 주목

켄텍, 개교 5주년 성과와 미래 비전은

교원 1인당 연구비 전국 3위...국가 과제 2242억 수주 AI·프로젝트 교육 혁신...영재·과학고 출신 56% 선별 교수 창업·지역 실증 확산...“2050년 세계 톱10 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개교 5년 만에 연구·창업·교육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내 에너지 특화 대학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원 1인당 연구비 전국 최상위권, 국가 대형과제 대거 수주, 기술 기반 교수 창업 확대, AI 중심 교육 혁신 등 짧은 기간에도 성과를 빠르게 축적하면서 지역 대학을 넘어 국가 전략 연구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켄텍은 20일 나주 본교 연구동에서 개교 5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켄텍은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 전략 연구플랫폼으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연구·산학협력·교육 분야 성과를 집중 소개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구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켄텍의 교원 1인당 연구비는 대학정보공시 기준 2024년 5억2000만원, 2025년 5억8000만원으로 2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 대형과제 12개 사업에서 총 2242억원, 국가 및 민간기업 연구과제 816건에서 총 2055억원을 수주했다. 논문



2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동에서 개교 5주년 성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이형술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문 영향력을 보여주는 평균 IF (Impact Factor)는 9.11로 조사됐다.

켄텍은 현재 에너지AI, 차세대그리드, 에너지신소재,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원자력에너지 등 6대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기술 연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와 한국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략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AI 기반 전력 생산·운영 시스템 최적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0일 나주 본교 연구동에서 개교 5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산학협력과 창업 분야 성과도 눈에 띈다. 현재 켄텍에서는 전임교원 10%에 해당하는 6명이 기술 기반 창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특허 성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기술이전 17건, 약 28억원 규모의 성과를 냈으며 유효 특허는 205건을 창출했다. 삼성전자와는 첨단소재·소재 분야, 한국전력과는 에너지 분야 공동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교원창업기업 ㈜그리네플은 농업부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천연가스(RNG)와 정정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소개했다.

그리네플이 개발한 ‘ADOS (Anaerobic Digestion for Organic Solid)’ 기술은 고형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청정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이다. 기존 습식 방식 대비 매탄 수율을 높이고 폐수와 악취 발생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청정수소 생산과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이 설계하고 문

제로 배우는 대학’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미국 올린공대(Olin College)의 GAPA 모델을 벤치마킹한 탐구 기반 학습(IBL)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중심 교육 체계를 소개했다.

켄텍은 학생 1명당 교수 3명이 지도하는 ‘트리플 어드바이징’ 체계와 학부 단계부터 연구에 참여하는 학부연구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 교과를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 방식으로 운영하며 AI 교육 전 학년에 의무화했다.

이 같은 교육 혁신은 임시 경쟁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 경쟁

률은 24.3대 1로 개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시 평균 내신은 1.46등급으로 5년 연속 상승했으며 영재고·과학고·자율고 출신 등록자 비중은 56%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KAIST·고려대 등에 동시 합격하고도 켄텍을 선택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학생 연구 성과 역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 2학년생이 물리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Physical Review E’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고, 학생들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

또 대통령 과학장학생,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공학리더(YEHS), 학회 최우수논문상 등 학생 수상 실적도 잇따르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교 4년 만에 학생 외부 수상 실적은 18건을 넘어섰다.

켄텍은 앞으로 연구·산학협력 기능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학 주변에 연구소와 에너지 벤처기업, 공동캠퍼스, 산학협력지원센터 등을 집적한 ‘KENTECH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공개했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켄텍은 개교 이후 여러 도전 속에서도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 전략 연구와 산업 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2050년 세계 톱10 공과대학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기업들 ‘발명의 날’ 정부포상 휩쓸었다

튜비콘·고스트페이스 등 4곳 정부 표창 수상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명 포상 무대에서 잇따라 정부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기술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20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지역 혁신기업 4개사가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발명의 날 기념식’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발명·지식재산 분야 행사다. 국가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를 포상하고 범국가적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튜비콘 박재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사이이에스케이 미갈 안전용 이사가 지식재산위원장 표창을, ㈜고스트페이스 이선관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맨인블록 ㈜박종형 대표가 특허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튜비콘은 의료 현장의 비효율적 검체 검사 과정을 개선한 ‘튜브 탈착 가능 적용 검사용 일체형 소변컵 (TUBYCON-U)’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 제품은 기존 수작업 중심 검사 과정의 불편함과 감염 위험 등을 줄인 의료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신제품(NEP) 인증도 획득했다.

튜비콘은 지난 2021년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4년 ‘글로벌 IP 스타기업’에 선정되는 등 광주지식재산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아왔다.

사이이에스케이같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을 받으며 기술 고도화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했고, 현

재 코스타 기술특례상장을 추진 중이다.

AI 보안 전문기업 고스트페이스는 탈중앙화 생체인식 기반 보안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AI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원천 특허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중앙집중형 생체인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차세대 보안 플랫폼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맨인블록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IT기업이다. ‘IP나래 프로그램’과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식재산 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헬스케어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박승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광주 기업들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아, FIFA 월드컵 대규모 차량 지원

LA서 차량 전달식...660대 제공 글로벌 모빌리티 파트너십 강화

기아가 FIFA 월드컵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 대규모 차량 공급을 통해 대회 운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아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LA Stadium)에서 차량 전달식을 갖고,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는 FIFA 월드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총 660대의 차량을 공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경기 운영에 활용되는 차량은 카니발, 텔루라이드, 쏘렌토, 스포티지, K4, 니로, 쏘넷 등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전역에서 열리는 가운데 기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라인업을 대표하는 주요 차량을 필두로 미래지향적



기아가 FIFA 월드컵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 대규모 차량 공급을 통해 대회 운영 지원에 나선다.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기아는 이번 공식 차량 지원 뿐 만 아니라 FIFA 월드컵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와 기아 ‘오피셜 매치볼 캐리어’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축구팬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MBC는 기아의 FIFA 월드컵 파트너십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월드컵 경기 시작 전 공인구를 심판에게 전달하고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를 선발하

는 프로그램이다. 기아 홍보차장은 “기아가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FIFA 월드컵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차량 지원은 세계 무대에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기아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전 세계 모든 참가자와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구글과 맞손...‘AI 글라스 시대’ 연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19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소재한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I/O 2026’에서 ‘안드로이드 XR’ 기반 인공지능(AI) 글라스 2종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양사가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문스터 및 웨비파커와의 AI 글라스 협업을 발표한 이후, 실제 디자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서 젠틀문스터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모델과 웨비파커의 전통을 담은 클래식한 모델이 각

각 공개됐다.

양사는 삼성전자의 정밀한 하드웨어 기술과 구글의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접목하고 아이웨어 파트너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사용자가 일상에서 이질감 없이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가볍고 세련된 ‘인경 폼팩터’를 완성했다.

AI 글라스는 갤럭시 AI폰의 핵심 기능을 보조하는 ‘کمپ네이션’ 기기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고도화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규 AI 글라스는 디스플레이는 없

지만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번거로운 조작 없이 음성만으로 편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AI ‘제미니AI’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카페 추천이나 음료 주문까지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대화 상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시간 음성 번역뿐 아니라, 메뉴판이나 표지판 등 사용자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번역해 들려준다.

신규 AI 글라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기아, ‘2026 레드 닷 어워드’ 5관왕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최우수상 1개·본상 4개

현대자동차·기아가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감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현대차·기아는 20일 ‘2026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 등 5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기아 EV4가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레드 닷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EV4’

안았고, 이어 기아 PV5, 제네시스 GV60 마그마, 모베드, 현대 사원증 케이스 등 4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EV4가 최고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제품에만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용 전기차 모델 가운데 역대 네 번째

수상 차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2022년 EV6를 시작으로 2024년 EV9, 2025년 EV3가 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V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핏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과감한 디자인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다. 기아의 전동화 라인업에서 비어있던 세단의 자리를 채우고, 패스트백 실루엣과 기존 세단의 틀을 깨는 과감한 디자인, 해치백의 콤팩트하고 역동적인 비례와 유럽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실용성을 부각시킨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PV5는 실용성을 극대화한 패키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강한 디자인 등으로 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올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